주제회의
가사노동의 젠더 불평등

한국의 가사노동 젠더 불평등, 해소되고 있는가?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가정은 모든 사람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장으로, 가족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과 양육, 교육, 보호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이다.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의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원의 일상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매일매일 누군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온 가사노동 덕분에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 삶이 가능한 것이다. 인류의 일상을 오늘날까지 지속가능하게 한 그 바탕에는 바로 '가사노동'의 숨은 기여가 있다. 가사노동은 우리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다운 삶의 기초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사노동은 개별 가정에서 무보수로 이루어지는 사적 노동이지만, 그 의의와 가치를 생각하면 사회적 노동으로 사회적 의제가 된다. 특히, 가사노동의 영역 중에서도 가족원에 대한 돌봄은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으로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크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돌봄에 대한 의존은 모든 인간에게 불가피한 '보편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돌봄'은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공적 의제가 된다(이현아 외, 2002).

산업화 이후 공고화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이분화된 성역할 모델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을 당연시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점차 맞벌이 모델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과 돌봄의 주책임자로 간주되는 '성불평등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20)에 따르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비율(2014년 64.3% → 2019년 72.8%)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가사노동시간은 여성(3시간 13분)이 남성(56분)의 4배에 달해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줄고(1999년 3시간 55분 → 2019년 3시간 13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추세(1999년 33분 → 2019년 56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인 30대에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비율(2014년 68.4%→2019년 81.6%)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 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실제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가사노동 참여 가설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이현아·김주희, 2021), 소위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Y세대 기혼남성은 성역할 태도나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가정 내 가사노동의 요구와 가용한 시간에 따라 가사노동에 참여하여,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나 과도기 세대인 X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 완화 양상에 주목하여 최근 30대 남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시도해 본 연구 결과, 여성은 음식 준비, 의류 손질, 청소, 상품 구입, 기타 가정관리 등 가사노동 영역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전반적 참여형'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모든 영역에 참여도가 낮은 '전반적 비참여형'

과 청소 영역에만 참여도가 높은 '청소 집중 참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동반자적 의식을 가진 젊은 세대에서도 여전히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여,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은 세대 불문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이현아·권순범, 2023).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커진 가정 내 가사노동과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가중되면서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는 더욱 커진 것이 현실이다(이현아, 2021).

베트남 사례(팜투히엔 젠더수석자문관)를 보아도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규범과 불평등성이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 자료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불평등한 시간분배를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 우리나라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의 젠더 불평등성은 세계 공통의 문제로 세계가 함께 연대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주요 공공정책에서 무급 돌봄 노동의 인식과 분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제안은 베트남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양성평등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가사노동과 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사수당제도'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만일 '광주형 가사수당제도'가 도입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 무보수로 이루어진 가사노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무보수 가사노동을 책임졌던 여성의 생산적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사수당제도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다만, 김경례 대표님의 발표에서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수당 지급의 대상, 적정 지급액, 수당 지급의 효과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사수당지급의 효과와 관련하여 기존의 다른 현금 수당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아동 양육 수당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발달 증진,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부모의 선택권 보장,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으나, 여성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내포하기도 한다(유해미 외, 2011). 이처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현금 수당 지급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7로 떨어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전히 세대 불문 작동하고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이 지금의 저출생 문제의 근원이 아닐까? 가사노동과 돌봄에서의 남녀 격차 해소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해결의 최우선과제가 아닐까 싶다(이현아 외, 2022). 가사노동의 일상성과 돌봄의 보편성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가사노동

의 일상성' 그리고 일생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돌봄의 보편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속성이다. 가사노동의 일상성과 돌봄의 보편성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질 때, 우리의 일상과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 (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현아 (2021). 코로나19시대,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에 대한 수요와 대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이현아·김은정·김유경 (2022).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현아·김주희 (202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71-86. DOI: 10.22626/jkfrma.2021.25.4.006.
- 이현아, 권순범 (2023).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30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화.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3), 67-75. DOI: 10.22626/jkfrma.2023.27.3.005.
- 통계청 (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